

타격왕 후보 뜨고 지고... '안갯속 경쟁'



잘나가던 안현민 부상에 시름 양의지, 6년 만에 야심찬 도전 1·2위 안·레이에스 퍽밀 추격 4위 김성윤도 막상막하 타력

2025 프로야구 팀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개인 타이틀 경쟁 역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타격왕 경쟁이 그렇다. 불과 한 달 전까지 타격왕 경쟁은 kt wiz 외야수 안현민의 독주 분위기였다. 올 시즌 급성장한 안현민은 규정 타석을 채운 지난 달 3일 타격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채워 넣었다. 당시 타율 0.364로 2위 김성윤(삼성 라이온즈)을 0.026 차이로 크게 따돌렸다. 그러나 데뷔 후 한 번도 1군 풀타임 경험이 없는 안현민은 체력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8월 이후 23경기에서 타율 0.234에 그쳤고 잦은 부상에도 시달렸다. 안현민은 8월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방한 경기 8회 말 수비 도중 타구를 처리하다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양쪽 비복근(종아리 뒤쪽 근육) 내측 부위 피고임 증

6월12일 대전 한화생명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1회 초 무사 1·2루 상황에서 두산 양의지가 1타점 적시타를 쳐내고 있다. 연합뉴스

세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는 3일의 짧은 휴식 후 복귀했으나 좀처럼 경기 감각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선 또 다쳤다.

8회 수비 중 펜스에 충돌한 뒤 왼쪽 무릎 통증으로 교체됐고 1일 정밀 검진에서 염좌 및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

안현민은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복귀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안현민이 두 번의 부상과 부진으로 주춤한 사이 경쟁 선수들은 무섭게 추격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7월까지 타율 10위에 머물던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포수 양의지가 타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1일 현재 타율 0.327로 안현민(0.332), 롯데 자이언츠 빅터 레이에스(0.327)를 퍽 밀까지 추격했다.

양의지는 8월 한 달간 24경기에서 타율 0.407을 기록했다.

양의지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타격왕에 도전한다.

통산 두 차례 이상 타격왕을 차지한 선수는 장효조(4회), 양준혁(4회), 이대호(3회), 이정훈(2회), 김현수(2회·LG 트윈스), 최형우(2회·KIA), 이정후(2회·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7명뿐이다.

양의지는 아울러 KBO리그 역대 세 번째 포수 타격왕 타이틀과 포수 최초 타격왕 2회 수상도 노린다.

KBO리그에서 포수로 타격왕을 차지한 건 2019년 양의지에 앞서 1984년 이만수(당시 삼성)가 유일했다.

타율 4위 김성윤(0.325)도 타격왕 등극 가능성이 있다. 그는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뽑아내는 등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8월 월간 최우수 선수(MVP) 후보 6명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투수 중에는 LG 트윈스 유영찬과 앤더스 톨허스트, 삼성 라이온즈 아리엘 후라도가 이름을 올렸고, 야수는 두산 베어스 양의지, SSG 랜더스 기에르모 에레디아, 키움 히어로즈 송성민이 경쟁한다.

스타야구리뷰 연합뉴스



김하성 '깜짝 이적' 애틀랜타에 등지

2일 탬파베이 "짧고 실망스러운 계약 끝났다" 공식 남은 연봉 28억은 애틀랜타가 부담... 오늘 팀 합류 예정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뛰던 내야수 김하성(29·사진)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소속을 옮겼다.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탬파베이가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랜타가 김하성을 영입했다"고 전했다.

2024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김하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탬파베이 유니폼을 입었다.

2년 2900만 달러에 계약한 김하성은 지난 시즌 도중 어깨 부상 여파로 7월 초부터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올해 김하성이 탬파베이에서 거둔 성적은 24경기에서 타율 0.214, 홈런 2개, 5타점이다.

김하성을 영입한 애틀랜타는 이번 시즌 62승 75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동부지

구 5개 팀 중 4위에 머물고 있어 '가을 야구' 가능성은 크지 않은 팀이다.

애틀랜타는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와 원정 경기가 열리는 3일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전 소속팀이 된 탬파베이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하성의 짧고 실망스러웠던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 연봉 1300만 달러, 2026시즌 1600만 달러의 조건으로 탬파베이와 계약했으며 이번 이적으로 올해 남은 급여 200만 달러는 애틀랜타가 부담하게 됐다.

김하성은 선수 옵션에 따라 2026시즌 애틀랜타에 남을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2021년 샌디에이고에서 MLB 데뷔전을 치른 김하성은 탬파베이를 거쳐 세 번째 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김하성은 지난해 8월 어깨 수술 후 잦은 부상에 시달렸다.

올 여름 EPL 이적시장 5조... 역대급 돈잔치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EPL)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5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갈아치웠다.

영국 BBC는 2일(한국시간) EPL 클럽이 6월 초 개장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현재까지 30억 파운드(약 5조6640억 원)를 지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이적료 총액인 19억7000만 파운드보다 52.3% 증가한 수치로,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프랑스 리그앙, 이탈리아 세리에A가 이번 이적시장

에서 쓴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이번 EPL 이적시장은 현지 시간 1일 오후 7시에 마감됐다.

리버풀은 마지막 날 1억2500만 파운드(2358억 원)의 이적료를 들여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알렉산데르 이사크(사진)를 데려오는 '빅딜'에 성공했다. 영국 역대 최고 이적료다.

이사크를 내보낸 뉴캐슬은 브렌트퍼드로부터 공격수 요안 위사를 5500만 파운드(1037억 원)에 데려왔고, 풀럼은 구단 최고 이적료인 3460만 파운드(652억 원)를 물고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브라질 원어 케빈을 영입했다.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첨가
- 브로멜라인
- 레시틴 풍부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